

포항지역건설노조 10년

- 아무도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김성오

민주노총 포항시협 의장 · 전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포항 시내에서 경북북부 지방으로 통하는 관문 가운데 연화재라는 곳이 있다. 연화재 꼭대기 옆 낮은 야산에는 수십 년 동안 포항지역에서 서러운 죽음, 이름 없는 죽음, 가난한 죽음이 몰래 묻혀 이제는 비공식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곳이 있다. 그곳 산중턱 양지바른 곳에 작은 봉분이 있고 그 작은 봉분을 굳게 지키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노동해방 열사 정원수의 묘”

그는 포항지역 민주노동운동이 시작된 87년 이후 파업이나 집회와 시위 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목숨을 던진 열사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지역건설노동자들은 그를 노동해방열사로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노동해방 역사에 분노로 사랑으로 스스로 목숨을 던진 열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운동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는 불의의 사고로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 이 땅에서 원치 않는 길을 갔다. 왜 그를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열사라 부르며 기억하는가

건설노동자의 벗 정원수

그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일반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특수한 일반성을 극복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투쟁한 노동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몹시 가난한 빈농의 둘째 아들이었고, 중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한 그는 팔뚝에 힘이 오를 무렵부터 건설현장에서 용접 일을 시작했다. 전국 건설현장을 철새처럼 일을 찾아다니며 공사판에서 꾸역꾸역 돈을 모아 부모님 모시고 농사지를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28살 총각인 그는 87년 포항제철 공사현장에서 용접 일을 하던 중 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목격

하고는 그 이후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식적 조직적 노력을 시작했다.

그때쯤 포항제철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배관공들이 몇 개의 계모임을 묶어 녁쿨회(배관파이프가 얽혀있는 형상을 본뜬)라는 배관공 모임을 만들었고 용접공들도 몇 개의 계모임을 묶어 불꽃회(용접시 불꽃 형상을 본뜬)라는 용접사 모임을 만들었다. 이를 계모임에서 발전된 건설노동자 모임은 회원들간의 친목과 일자리 소개,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서서히 현장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노동가배우기와 노동법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했고, 88년 녁쿨회와 불꽃회를 합쳐 마침내 포항지역 기능인협의회를 결성하고는(참가인원 400여명) 자체회비를 모아 20여명의 사무실과 실무간사를 채용하여 근로조건개선에 대한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그는 불꽃회 회원으로 열심히 조직활동을 했으며, 88년말 포항지역 민중학교에서 사회 모순에 대한 학습을 하였다.

이런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이 1989년 4월 13일 마침내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는 여기서 초대 쟁의부장을 맡았다. 그는 그 이후 노조결성과 조직확대과정에서 집단 해고된(범동건설) 20여명의 조합원들과 복직투쟁을 벌이며 평민당사 농성, 범동건설 서울 본사 상경투쟁으로 마침내 복직을 쟁취하여 조직확대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였고, 그 이후 1989년 9월 시작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34일간의 파업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우리는 마침내 한쪽 짜리 단체협약을 모진 투쟁으로 쟁취했다.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주, 월차를 지급한다. 그리고 노조를 인정하며 향후 정기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며 파업기간중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종이 한쪽의 단협이었다. 하루 10시간노동,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전혀 무시되었던 전국건설현장에서 최초로 사용자(80여개업체), 대표(10개업체)와 합법적 단체교섭을 통한 단협이었던 만큼 그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90년 4월 13일 제2대 집행부가 출범하던 날, 우리는 건설노동자 10쌍이 함께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건설노동자중 많은 동지들이 눈맞아 살림 살고 아이 낳고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노조에서는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심정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서였다. 그는 2대 집행부에서도 역시 쟁의부장이었다.

그리고 2대 집행부 수련회가 6월 15~16일 형산강변에서 열렸다. 수련회가 끝나갈 무렵 참석 간부 전원이 발가숭이로 등을 밀어주는 단결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그가 보이지 않았고 누가 소리를 질러 그를 발견했을 때는 그는 수면위로 떠올라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는 영원히 못을 길을 떠났다. 동지의 장례식은 조합장으로 치러졌는데 그는 마지막 숨을 내뿜



1996년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인단협 승리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우리 조직의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장례 부조비를 우리는 각 현장(대략 50 곳)에서 쉼인을 받아 월급에서 댈친정수 했고 이러한 사례는 노조비를 봉급에서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기틀이 되었다. 장례식에는 건설노동자 500여명이 참석하였고 조문은 1,000여명이 다녀갔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더 큰 것은 노조가 살아있으므로 한 노동자의 죽음을 역사에 남길 수 있다는 노조원들의 살아있는 느낌으로 그 후 노동조합은 파업과 장례식을 거쳐 포항지역 5,000여 건설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정인수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 건설노동자도 인간다운 노동을 하며 살아야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그 후 우리는 이렇게 구호

를 외쳤다.

‘일사의 뜻 이어받아 노동조합 강화하자!’
동지는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1992년 파업투쟁

1992년 11월 16일 지금의 48개 조합의 단합을 경취하는데 우리는 진짜 목숨을 건 7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1989년 9월, 31일간의 파업이 미조직된 분노와 폭발적인 파업이었다면, 1992년 11월, 7일간의 파업은 철저히 준비되고 조직된 계획적인 파업이었다. 우리가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는 몇 개가 있었다.

우리의 문제는 첫째, 내부의 결속력이었고 둘째, 단합행진투쟁이었다. 포항철강공단에 흩어져(80여개업체) 비정규직 임시,

‘헛바닥만 놀리고 머리통만 빼개는 술’은
우리의 승리가 쟁취되는 그날 동지가 마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해방의 술이 되기까지 끊어버리기로 했다.

.....

일용직으로 일하는 우리는 조직이 완성되어 스스로의 노조 규율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89년 파업이후 조직이 느슨해졌고 노조만 만들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아 노조로 모여든 노조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탈해갔다. 노조보다 십장, 오야지 중심으로 임금협정과 단협이 현장 곳곳에서 무용지물이 되어갔다. 회사들의 고의 단협파기 현상이 두드러졌고 노조원보다는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작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싸웠다. 내부 불신분자를 몰아내고 노조의 위력으로 회사를 굴복시키려면 파업밖에 없었다.

100일간의 전쟁이라 불리는 포항제철 3고로 개보수작업 그 현장에는 2,000여명이 투입되어 주야 24시간 공사가 진행된다. 그 공사 시작 일주일을 앞두고 3고로가 코앞에 보이는 형산강 고수부지에 우리 키를 훨씬 넘는 갈대밭 500여평을 낮으로 베어 베어낸 갈대를 방석 삼아 깔고 앉았다. 1천여명 모여 파업행위 찬반투표를 하니,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고, 즉각 파업이 시작되었다. 파업집회는 오전 6시에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끝났고 직종별 분회와 선봉대 50명씩 꾸려져 300명이 일주

일 동안 꼬박 숙식을 같이 했다.

파업은 주로 파업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80여곳의 현장을 타격하는 것이었는데 200여대의 오토바이 기동대가 담당했다. 야간에는 파업불참 노조원을 찾아가 설득, 회유 때론 협박을 했다. 그리고 타지역 노동자의 공사장 출입을 막기 위해 새벽 6시부터 포철 출입문 3곳을 인간사슬로 막았다. 여관을 뒤져 노가다(건설노동자)들을 설득해 집으로(타지역)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투쟁이다.

1989년 파업의 중심이 거리점거 투쟁이어서 백골단과 공권력과의 싸움이었지만, 1992년 파업은 포철출입문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공사장마다 파업장소로 신고도 하고해서 공권력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며 내부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내부투쟁에 돌입했다. 드디어 우리의 위협(공사장 봉쇄)작전은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지역 노동자들도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고 우리와 동조하거나 자기지역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임금 16.8%인상과 노조전임자 보장과 노조활동(교육시간, 회의시간)보장 그리고 산업안전, 법정복지(주,년,월차) 모든 휴일 유급, 경조사 유급 등 꿈같은 (제조업 노동자들과 비슷한 48개조항

의) 단협을 완전 쟁취했다.

영하의 날씨, 형산강변 그곳에서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았다. 술취한 몇몇 노조원과 술을 파업장소로 유입시키는 노동자도 있었고 회사측의 파괴공작도 있었지만, '헛바닥만 놀리고 머리통만 빼개는 술'은 우리의 승리가 쟁취되는 그날 동지가 마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해방의 술이 되기까지 끊어버리기로 했다.

우리는 자발적 참여로 파업기간 술을 끊어버렸다. 그 파업동안 50여명의 파업지도부는 목이 다 쉬어버렸다. 목이 카랑카랑한 간부는 변절자, 배신자였다. 세수도, 수영도 까칠한 그리고 목이 쉬어 손으로 의사를 표시하던 파업지도부 50여명의 눈 속에는 정원수 열사가 늘 함께 있었다.

이제 세월이 10년이 흘렀다. 그 뒤에도 우리는 2년 걸쳐 1번씩을 꼭 파업을 한다. 우리의 요구는 내부결속이다. 건설현장에서 어차피 수요와 공급, 공사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임금, 근로조건은 단협과도 무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치 못하는 것이 있다. 노조를 배반하는 행위, 8시간 노동, 단결을 저해하는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파업을 한다 내부결속을 위해 그때마다 우리는 그를 떠올린다. 초대 쟁의부장 정원수, 우리 건설노동자의 열사 정원수!

앞으로의 10년을

현재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IMF구제금

용시대이후 건설산업의 부도, 경기침체, 설비투자감소 등으로 노조원 80%가 휴무 상태에 있다. 우리의 고민은 일거리 찾기에 모아져 있다. 고용안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용창출, 실업대책이다. 우리의 10년 투쟁과 피나는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창출과 조직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내용은 10년 노조의 성장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사업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 토론회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성과

1. 대표성 인정 : 회사, 건설노동자
2. 단체교섭권, 행동권의 정착
3. 비영리법인화 : 대안사업기틀 마련
4. 노조의 사회 역할 확대 : 기능학교운영
5. 재정 자립 : 순수 노조비 연간 2억원
6. 노동자 연대사업의 적극성

우리의 문제점

1. 임금협정내용 : 최저단가제로 건설현장 임금논리를 강제로 규제하여 기능공의 임금상승효과역세
2. 대안사업취약 : 고용창출을 위한 취업경로를 노조에서 장악하지 못함
3. 지역성의 문제 : 건설노동자의 문제는 사회복지제도나 전국적 건설현장에 동시 적용되어야 하는데 포항시 행정구역에만 노조 임, 단협 적용으로 지역성 탈피 못함
4. 조직의 방만함 : 노조원 가입 5,000

명을 넘어섰으나 관리체계의 한계로 조직이 느슨함
오픈샵 노조여서 노조원, 조직동원력 미치지 못함

대안사업

1. 조직관장력 : 노조원 수첩제도등으로 클로즈샵 형태의 책임있는 조직관계 필요
거주지별 관리형태인 대의원조직 필요
2. 고용센타 : 직업훈련원과 취업알선, 공급사업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대응의 종합적 고용안정센타사업 필요
3. 실업대책 : 대정부 실업대책에서 제외된 건설일용노동자 실업대책 요구, 투쟁

우리 포항건설노조는 실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입단협을 중심으로 노조원을 더 이상 노조로 결속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대안사업은 노조의 중심활동이 이제는 노조원이 되면 직업훈련과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해야 임금도, 단협도, 노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제 전국의 지역노조에 관심 있는 동지들께 몇 마디만 하고 글을 끝맺어야할 것 같다.

지역노조의 활성화는 산별노조 건설의 선행조건이다. 이제 우리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를 열망하는 모든 선전노동자들은 지

역노조, 즉 비정규직 노동자조직에 혼신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포항지역의 건설노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포항제철과 철강공단 안에 5,000~10,000명 정도의 일용노동자가 모여서 일하는 노동자 군(무리)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조직을 위해 일해온 주체성을 가진 노동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의 문제는 늘 현장이다.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달렸다. 지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은 공사현장과 작업장이라기보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일수가 있는 것이다. '취업의 문제, 기능훈련의 문제, 노조원일 때 얻을 수 있는 노조의 서비스' 이상의 것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역지로 20~50명 모여서 노조 일을 시작하는 것도 소모적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여들 수 있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먹고, 일하는 것이 해결되는 공간, 그것이 무엇일까? 그 공간이 지역노조, 비정규직 노조에서의 현장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감히 고용안정센타라 부른다. 그곳에 오면 일자리, 취업관련훈련, 정보, 부당노동행위구제, 단체단결력의 조건, 노조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서 뭉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도록 하자. 그래! 이것이다! ❖